주사랑교회 소식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대림절, 성탄 점등 예배
2024년 12월 1일(주일) 오전 11시 예배는 대림절 첫 주간입니다.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오늘을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3. 첫날맞이 월삭예배 (성찬예식 / 배종위원 - 이광근 안수집사)
오늘(12.1) 오전 11시 예배는 첫날맞이 월삭예배를 겸하여 드립니다.

4. 목요 구역예배
지난 주 폭설로 인해 에마농카페에서의 구역예배를 연기했었습니다. 금주 목요 구역예배는 임명자 집사 가정에서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 50분에 출발합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31, 1층 카페 에마농카페)

5. 어린이 예배
매주 주일 오후 1~2시 어린이 예배를 교육관에서 드립니다.

6. 청소년 예배
매주 토요일 오후 4~5시 청소년 예배를 교육관에서 드립니다.
박수진 학생 : 중국 여행 (11/20~11/27)
강민지 학생 : 중국 친척 방문 (12월 ~ 1월, 약 2달 일정)
안전하고 행복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7. 12월 생일을 축하합니다(-11.1~12.1).
12/14일(토)-오동영 집사(-11.14)　　12/27(금)-이은서 어린이
12/29일(일)-한성결 학생

찾아오시는 길 / 매교역 2번 출구방향 50m

주일대표기도

12/01	임명숙 집사
12/08	정애자 권사
12/15	김혜숙 권사
12/22	박제연 집사
12/25	이광근 안수집사
12/29	임명자 집사
2025 1/5	임명숙 집사

행사계획

날짜	행 사 내 용
12/01	대림절 1주 / 성탄 점등 예배
	첫날맞이 월삭예배 (성찬예식)
12/03	지방회교육원 세미나
	다음세대, 신년목회를 위한 제안
12/08	대림절 2주 / tjdtjwndlf
12/12	경기서지방 목회자 부부 기도회
12/15	대림절 3주 / 사무총회 공고(1)
12/17	북녘 성도와 함께하는 성탄예배
12/22	대림절 4주 / 사무총회 공고(2)
12/25	성탄절 감사예배 (세례/성찬)
12/29	송년감사주일 / 제17차 사무총회
12/31	송구영신예배 (밤 11:30~12:30)
01/01	신년맞이 감사예배
01/05	2025 신년 감사 주일

주일 차량 운행

요일	운 행 안 내
주일	교회출발(9:45)►탑동(10:00)
	►화서동(10:10)►세류동(10:20)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탑동(13:40)
	►화서동(13:50)►동탄(14:20)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예배안내

구 분	시 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토요학생부예배	오후 4:00
주일청년부예배	낮 1:3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월~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0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담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담 후 진행)
쉐 마 학 당	(상담 후 진행)

주사랑 7권 48호 | 2024년 12월 1일
창립 2017.11.25 | 대림절 첫 주 / 성탄점등예배

기 독 교 대한성결교회 **주사랑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①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②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③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④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⑤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⑥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⑦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⑧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대강절 첫 번째 주일 / 성탄절등예배 인도:집례자

※ 성탄점등식	사 9:6~7	순서지 별첨
※ 찬 송 가	찬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다 같 이
※ 사도신경		다 같 이
※ 주기도문	찬 635장	다 같 이
성시교독	No.115 구주강림(1)	인도자/회중
찬 송 가	찬 622장 (거룩한 밤)	다 같 이
대표기도		임명숙 집사 (청소년부 부장)
성경봉독	말라기 4:4~6 (구약 1330)	임명숙 집사
※ 성찬예식	찬 229장 (배종위원 : 이광근 안수집사)	집 례 자
광 고		인 도 자
말씀인도	그 날을 기다리라	한승훈 목사
봉헌찬송	찬 635장 (헌금위원 : 이종빈 학생)	다 같 이
※ 축 도		한승훈 목사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양기로운 예물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미리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 십 일 조 : 문동잔·임명자 장서라 한승훈·임명순
- 주정헌금 : 김혜숙 문재효 박제연 이광근 이다남 임명순 임명자 정애자 한승훈 / 임명숙
- 교회학교 : 이재우 이재희 이재아 한은총 한태민
- 청소년부 : 임명순 한성결 한희락
- 감사헌금 : 김혜숙 이광근·박제연 전복순 정애자 한승훈·임명순
- 구역헌금 : 김혜숙 박제연 임명순 정애자
- 전도헌금 : 장지우 장연우 장은비 장세규 장세경 최민희
- 후원헌금 : 소망세광교회 희망찬교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수협) 무명1(하나)

농협 (주사랑교회) 351-1002-2982-63

통일선교비전기도회

오후 7:30	한승훈 목사
대표기도	맡 은 이
성경봉독	호세아 12:1~14 (구 1266)
말씀제목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인도	김성은 목사

수요 저녁 기도회

오후 7:30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마태복음 25:1~13 (신 42)
말씀제목	깨어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

목요 구역 기도회

오후 2:00	임명자 집사 ····· 박제연 집사
성경봉독	왕상 15:25~32 (구 541)
대표기도	김혜숙 권사
말씀제목	과거에 얽매이지 맙시다

금요 저녁 기도회

오후 7:30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데살로니가전 3:9~13 (신 331)
말씀제목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새벽 기도회

새벽5:30 매일성경 (월~금)

12/1(일)	호 ~12:14	하나님을 속이는 자의 심판
2(월)	호 13:1~16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거늘
3(화)	호 14:1~9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4(수)	암 1:1~2:3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
5(목)	암 2:4~16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
6(금)	암 3:1~8	심판의 이유를 헤아리자
7(토)	암 3:9~4:3	세상보다 더 악한 이스라엘
8(일)	암 4:4~13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단, 주일은 개인별 자율 묵상)

국내선교(선한충성교회)

장주정 목사(에청)

선한충성교회
성품연구소 대표
태교연구소 대표

국내선교(오주교훈홈스쿨)

이재우·재희·재아

홈스쿨링
성경적 가정
복음적 다음세대

해외선교(모로코)

함메드로 선교사
안사랑 선교사

모로코
캠퍼션 파송
소리 단이

해외선교(타지키스탄)

이진운 선교사
임민주 선교사

타지키스탄
인터콥 파송
평신도선교사

북한선교(북한선교위원회)

가정 총회 향존

북한선교정책수립
북한성결교회재건
북한이탈주민정착
통일선교학교

⑧ **남 유다 왕국을 위협하고 있는 아람과 북 이스라엘 연합군의 신속한 멸망을 예언한 말로 돌이킬 수 없고 수정할 수 없는 말씀이기에 돌 판에 기록한 내용은?**(사 8:1, 4)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 )라 쓰라 이는 이 아이가 내 ( ), 내 ( )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앗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뜻, 신속히 약탈물, 재빨리 노획물)

⑨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야를 예언케 하신다. 메시야기 성장할 땅을 가리켜 예언한 곳은 어디인가요?**(사 9:1~2)

전에 고통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 )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⑩ **장차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위해 보내질 메시야의 호칭들은 무엇인가요?**(사 9: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 )라, ( )라, 전능하신 ( )이라, 영존하시는 ( )라, ( )이라 할 것임이라

⑪ **장차 임하실 메시야는 어떤 사역을 하신다고 예언했나요**(사 9:7)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 )하여 그 나라를 ( ) 지금 이후로 영원히 ( )와 ( )로 그것을 ( ) 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⑫ **이스라엘에게 앗수르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사 10:5~7)

앗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 )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 )라 내가 그를 보내어 ( )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 )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 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⑬ **앗수르를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다짐하시나요?**(사 10:20~21)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 )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답안을 작성한 주보의 앞면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봉헌시간에 축복기도와, 1년 치를 모아 제본해 해드립니다)

성경공부 : 2024-49주 / 이사야 6장 ~ 10장

① **이사야가 선지자로써 부르심을 받은 시대적 배경은 무엇인가요?**(사 6:1)
( )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②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의 핵심적인 깨달음은 무엇일까요?**(사 1:5)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 )을 뵈었음이로다

③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여 세우실 때 가장 먼저 입혀주시는 은총은?**(사 6:6~7)
그 때에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 )이 제하여졌고 네 ( )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④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사야를 보내시고자 하실 때 이사야의 반응은 모세와 어떻게 달랐을까요?**(사 6:8)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 ) 하였더니

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철저한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면서도, 포로 된 곳에서 다시 돌아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재목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셨나요?**(사 6:13)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 )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⑥ **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르말리야의 아들 베가가 연합하여 남 유다를 침공하였을 때, 큰 두려움으로 흔들렸던 왕과 백성에게 민족의 서고 넘어짐을 결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시며 격려하신 말씀은?**(사 6:9)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야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 ) 하시니라

⑦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와 구원의 비결을 한 징조를 주셨는데 예언의 핵심은 무엇인가요?**(사 7:14~16)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 )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 )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향기로운 삶 : 대림절(降臨節)의 의미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0~21절)

교회 용어는 한 단어에 기독교의 신앙과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생소한 언어들이 탄생하게 되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아 오히려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의미의 말도 여러 단어로 표현하다 보면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대강절(待降節) 대림절(待臨節) 강림절(降臨節)입니다. 대강절(The Advent)은 '도착' 또는 '오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Adventus'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4주간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시작되듯이 모든 교회력은 대강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날의 대강절은 6세기 중엽 그레고리우스 1세(540~604) 때 정착됩니다. 대강절을 철저하게 지켰던 동방교회는 이 기간에 그리스도의 신부(고후 11:2, 계 19:7)인 성도들의 결혼을 허가하지 않았으며 사제들은 결혼예식을 집례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가톨릭 또한 이런 전통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대강절을 그 어떤 절기보다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은 모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기독교 용어입니다. 대강절과 대림절은 '기다릴 대(待)'를 써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린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나, 강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다는 의미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대강절은 단순히 2,000여 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대강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렸던 그 마음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질수록 교회보다 오색찬란한 백화점과 쇼핑몰들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성탄절이 마치 산타클로스의 생일인 것처럼 변질 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대하며 기대하는 대강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구역예배 • 가정예배 (구역예배가 어려우신 성도님들은 가정예배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예배진행	인도자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가	찬 575장	다 같 이
대표기도		김혜숙 권사
성경봉독	왕상 15 : 25 ~ 32	맡 은 이
말씀인도	과거에 얽매이지 맙시다	박제연 집사
합심기도		다 같 이
헌금기도	찬 585장	맡 은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BC	오늘 본문의 연표	Bible
931	남조 북이스라엘 분열	왕상 12장
913	남조 르호보암의 죽음	왕상 14장
913	남조 아비얌의 등극	왕상 15장
911	남조 아사의 등극 (~870)	왕상 15장
910	남조 아비얌의 죽음	왕상 15장
910	북조 나답의 등극	왕상 15:25~31
908	북조 바아사의 반란(~885)	왕상 15장
884	북조 엘라의 등극(~885)	왕상 16장

■ 들어가는 말

지난 주 첫눈이 많이 왔습니다. 서울이 29.5cm, 수원이 32.2cm, 여주는 42.8cm의 적설량을 보였다고 합니다. 학자들도 117년 만에 온 폭설의 이유를 정확하게는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구의 바다 수온이 2°C 정도 올라가서 바다의 많은 수증기가 대기속에 스며들었고,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 많은 눈으로 변했다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예기치 못한 폭설은 때로 재앙과 재난의 고통을 안겨줍니다. 지난주 예상치 못한 많은 눈으로 54중 추돌사고 소식에 성도들의 안전을 염려하신 임명자 집사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오늘로 구역예배를 연기해서 드린 점 양해와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 왕국의 아사 왕은 아세라 상을 제거하고, 우상숭배를 척결했으며, 심지어 우상숭배에 심취되었던 태후조차도 폐위함으로써 종교개혁을 단행해 하나님께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아사 왕은 군사적으로도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아사의 이런 업적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행동을 인정받았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 다윗 왕가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으며, 여호사밧 왕에게 무사히 왕권을 물려줄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의 왕가는 온전케 보전되지 못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나답이 왕권 수행을 2년 밖에 하지 못한 것에는 합당한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의 명령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공평과 인애와 정직을 배제한 이방인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답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을 어떻게 다듬어가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과거의 굴레를 끊어내야 합니다(25~26).

남 유다 왕국의 아사 왕 2년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본문에는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돼있지만, 실제는 1년이 조금 넘는 기간입니다. 나답에 대한 성경적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로 부정적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 지은 죄는 단과 벧엘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대신 했습니다. 또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산당 제사를 성행시켰습니다.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막았습니다. 나답은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경고와 늙은 선지자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혼합종교정책을 그대로 따릅니다. 문제는 이런 그들의 정책과 행동들이 백성들도 죄를 짓게 만드는 죄를 지었다고 평가합니다.

북 이스라엘 왕국은 나답 왕의 등극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지만, 나답은 그것을 회개를 통한 개혁과 부흥의 기회로 삼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 왕의 잘못된 종교 정책을 조금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행합니다. 남유다 왕국의 아사 왕이 자기 조상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얌의 그릇된 길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떠난 것과는 다르게, 북이스라엘 왕국의 나답 왕은 다윗의 행로가 아니라 더러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갑니다. 왕이 우상숭배에 앞장서자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우상숭배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전통을 고수하는 것만이 늘 옳은 것은 아닙니다. 편하고 익숙하다고 항상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고 또 어떤 것을 버려야할지 잘 분별해서, 자녀와 후손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둘째, 과거의 경고대로 심판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27~30).

잇사갈 지파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등장합니다. 나답에게 반역할 세력을 모으고 나답과 모든 군사들이 블레셋 지경의 깁브돈을 점령하기 위해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서 나답을 칩니다. 나답과 그의 군사들이 블레셋 족속이 지배하고 있는 깁브돈을 회복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 틈을 타서, 바아사는 나답을 공격하고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 왕에게 엄히 경고하신 심판을 이행하신 일입니다(왕상 14:10~11). 나답 왕을 향한 모반에 성공하고 왕이 된 바아사는, 나답만 죽이는데 그치지 않고, 후환을 없애기 위해 여로보암의 온 가문을 쳐서 단 한 사람의 생명도 남기지 않고 멸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도 잔혹하고 끔찍한 형태의 심판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철저하고 무섭게 성취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오직 두 길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다윗'의 길을 걷든지, 아니면 말씀을 떠나서 '여로보암'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는 길을 걷든지 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 준엄한 책임은 선택한 당사자가 감당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감각하지만 자기의 분노는 참지 못하는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나답 왕은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백성을 죄악의 길로 몰아가면서도, 블레셋이 자기 땅을 침범하는 것은 두고 보지 못하고 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나답 왕이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은 블레셋 군대가 아니라, 우상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자신 안에 있는 불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으로 제쳐 둔 채, 너무 분주하게만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헛수고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속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삶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규례와 법도를 공평하게 집행함으로써 열방들로부터 큰 나라로 칭함을 받게 되었지만, 이방의 길을 따라 반역의 길을 갔고, 왕들은 토라에 불순종했습니다. 왕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신선한 표현이 되게 하는 복된 책무를 소홀하였습니다. ㅅ

■ 결론

인간의 악함과 구조의 비도덕성이 망가뜨린 사회는 하나님의 응징을 통해 정화되고 성찰의 계기가 주어집니다. 교회는 현현하는 하나님 나라의 여러 면모들을 세상 속에서 남아내야 하는 선교적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망각하게 되면 교회는 존재 가치를 잃게 됩니다.